



따뜻한 사람 · 아름다운 세상

나누고 손잡으면 이루어 집니다



불자 약사보리회는 회원 약국에 저금통을 비치하고 나눔의 손잡기 모금운동에 동참했다. 사진은 청량리 남부 약국 류남영 약사가 동전을 저금통에 넣고 있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자비의 가르침 ‘생명 나누기’로 실천해요”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10년 대형 캠페인 전개 ‘나눔의 손잡기’ 동참해 ‘생명을 나누세요’ 운동 골수기증 회원 2천명 목표... 헌혈·수술비돕기 등

‘나누면 커집니다. 자, 이제 실천입니다.’ 나누면 나눔수록 기쁨은 커진다. 베풀어 사 람만이 그 참맛을 알 수 있는 ‘나눔의 미 학’. 본지가 창간 10돌을 맞아 연중캠페인 으로 벌이는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생명 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조계종 총무 원장)가 함께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오는 3월 창립 10주 년을 맞아 본지와 함께 장기기증 결연, 골 수기증등록사업, 혈액질환자 헌혈증과 월 소판 공여, 불우환자 치료 및 수술비 돕기 등의 기존 사업을 한층 강화해 ‘생명을 나 누세요’ 캠페인을 전개한다.

실천본부는 우선,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한 의료복지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 삶 과 생명을 나누는 참뜻을 전국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골수기증회원 2천명 을 목표로 불교계 직장·직능단체, 강원, 신도단체, 복지시설 등과 연대활동을 전개 하고, 자원봉사조직 기반도 재정비한다.

실천본부는 현재 제주불교여성합창단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신도회, 조계종 포교사 단, 대구 영남불교대학 등과 캠페인 단체협 약을 마치는 등 협력 기관을 확대하고 있

다. 또 자원봉사 및 후원자의 체계적인 조 직화를 위해 생명나눔연예인봉사단, 장기 기증자홍보단, 재가불자 후원결사체 등의 결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실천본부는 본부 기능을 단순 ‘지 원’에서 생명나눔운동의 ‘센터’로 그 위상 을 높인다. 그동안 벌여온 장기기증, 결연 사업, 헌혈지원 등의 기본 업무를 생명존중 사업으로 한 데 묶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천본부는 올해부터 불교계 장기기 증센터 설립을 위한 본부회관 건립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건강생활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예 환자발생율을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다. 한 가정에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경제난, 제2 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가족구성원간의 연 쇠적인 고통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해숙 사무총장은 “운동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참여가 중 요하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며 “이 캠페인이 원만히 이뤄 질 수 있도록 불교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동 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 (02) 734-8050

김철우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법장 스님이 자원봉사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 나눠 드립니다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 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 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23만여명의 저소득 장애인, 137만여명의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4천여명의 미아, 등이 한 하 늘이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

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 사무실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 계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 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 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코리 하고 엠 블링을 공동 사용합니다.

● 함께하는 나눔의 미담

■ 불교호스피스 자원봉사

천태종 니르바나자원봉사회는 죽음을 앞둔 임종 환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보살핌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 안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불교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다. 불교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 은 니르바나자원봉사회에 연락하면 된다. 니 르바나자원봉사회는 전국 7백여명의 회원이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하고 각종 봉사활동 을 펼치고 있다. (02) 575-3467

■ 보내주세요

가야산 해인사 인근에 위치한 해인사실버 터운(원장 덕운 스님)은 어르신들이 마지막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보금자 리이다. 해인사 실버터운은 5년간에 걸쳐 약

■ 이렇게 참여하세요

①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 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 (불자 변호사 세무사)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 연대가 가능합니다.

②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 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 니다. 또 봉사자가 필요한 복지단체의 경우 봉사자를 요청하면 보내드립니다.

③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

1만여명의 꽃동산을 가꾸기 위해 꽃씨를 기 증받고 있다. 동참 문의 (055) 934-0250

■ 도와주세요

▲순천 송광사는 조계종 제 26기 행자교육 원 개원준비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다. 자원봉사분야는 방사청소, 설거지 등이 며,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다. 문의 (061) 755-5301

▲서울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경로당 활성 화 사업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이미용, 경로당 청소, 이미용은 수시 모집, 환 경도우미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02) 804-4085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반아원은 행정실에 서 일할 자원봉사자를 찾는다. 운전가능한 사 람이면 누구나 가능. (055) 632-1854

▲의정부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굿두리네 집은 오는 3월 개소한 단기보호센터에서 일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한다. 봉사 분야 는 장애아동 학습 및 보육보조, 산책, 외출, 나 들이, 현장학습 도우미 등. 후원은 기금 및 물 품후원, 계좌번호 : 농협 126-01-041495(예 금주 주간보호센터 굿두리네집). (031) 829-8294

▲부산 옹호종합사회복지관 부산 옹호가정 봉사원파견센터는 생계비지원 후원자를 모집 한다. 후원금은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독 거노인 및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노인들에게 전달된다. 계좌번호 : 부 산은행 083-01-033931-1(예금주 : 옹호복 지관) (051) 628-6737-9

특별취재팀
김원우 차장·박병영 기자·김철우 기자

■ ‘나눔의 손잡기’ 동참해 주신분

세계문화재단 세계명작전집 100권-권오남(서울서초동)
헌혈증-박옥정(서울잠원동) 웃 5백-박미숙(서울서초동)

■ 어린 생명에게 ‘희망을...’

뇌종양 투병 주희의 꿈은 “학교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뇌종양 투병중인 12살의 산골 소녀가장을 도와주세요. 약성 뇌종양에 걸린 산골 소녀가장 조주 희(진부초교 5학년) 어린이는 몸이 불편한 조부모와 9살짜리 동생까지 책임 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뇌종양 진단은 부모를 잃고 힘 겹게 살아온 주희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어렵게 수술을 했지만 병원비 2천만원은 고 스란히 빛으로 남았다.

수술후에도 매달 200만원이 넘는 정기 처 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고통의 눈물로 하루 를 보내고 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인근 사찰 땅 2000 여 평을 빌려 농사를 짓고, 연등 꽃잎 만들기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희의 소원은 하루빨리 학교에 나가 친

구들이랑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월정분교 한기희 담임선생님은 “월정사 주지 스님이 진산식날 화환대신 주희들기 모금을 하겠다고 밝혀 기쁘다”며 “한 어 린이가 인생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낄 수 있도 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문의 (033) 332-6559 김철우 기자



할머니와 함께한 주희가 고개를 숙이며 울먹이 고 있다.